

폐암 수술 후 합병증

조석기 (서울의대)

폐암은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흉부종양파트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다. 최근에는 흉강경 폐엽 절제술이 보편화되면서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는 많이 감소하였지만, 반대로 고령의 환자가 늘면서 합병증 발생율은 크게 변화 없다. 수술 후 합병증은 수술 전 환자의 기저 질환과 복용 중인 약제, 수술 중 폐의 유착 정도, 혈관처리, 임파선 절제 범위 등에 따라 발생 빈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. 합병증이 수술 후에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,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. 이 시간에는 폐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.

합병증의 발생으로 파생된 다량의 공기, 다량의 흉수, 염증, 신경 손상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.

1. 다량의 공기

- 1) Massive airleak, subcutaneous emphysema, dead space, pleurodesis
- 2) Bronchopleural fistula
- 3) Bronchial dehiscence
- 4) Bronchial stenosis

2. 다량의 흉수

- 1) Postoperative bleeding
- 2) Chylothorax
- 3) Empyema: postlobectomy, postpneumonectomy

3. 폐 실질의 문제

- 1) Simple postoperative collapse
- 2) Lobar torsion
- 3) Postoperative pneumonia, acute lung injury, ARDS

4. 신경 손상

- 1) Recurrent laryngeal nerve
- 2) Phrenic nerve
- 3) Vagus nerve
- 4) Sympathetic nerve

이상의 합병증에 대한 임상 소견과 영상 소견을 숙지하고, 이를 확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과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.